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돌격대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1호발전소 언제 공사를 지난 8월 28일 청년절을 맞으며 완공하였는데 백두전구에서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라고, 지난 4월 자신께서 발전소건설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 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를 보시고 건설중에 있는 교양실을 돌아보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청년



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교양실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으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 언제, 2호발전소 물길 굴과 발전기실, 조종실, 옥외변전소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

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대상설비생산보장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젖줄기인양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부터 삼지연군까지 뻗은 송전선탑과 송전선을 만족하게 보신 다음 군인건설자들이 침수지역인민들을 위해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것만큼 공사를 완전무결하게 결속하고 이곳에서 승리의 선언인 군민청년대합창을 하늘땅이 들썩하게 진행하고자 하시면서 자신께서 꼭 보아주시겠다고, 그날 1호발전소언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는 은정깊은 약속을 다시금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기동예술팀의 공연 《백두청춘들이 부르는 신념의 노래》를 보시고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준 훌륭한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선동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관철하겠다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라선시피해복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말그대로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전투를 진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장전역에서 창조되고있는 기적과 위훈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민이 힘을 합쳐 피해복구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세대의 침수된 살

림집들에 대한 보수사업과 라선시의 전력, 체신, 철도망들에 대한 림시복구를 기본적으로 끝낸것은 큰 성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이미 살던 집보다 더 멋있고 현대적이며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서 기본대상인 살림집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가라고 지시하시였다.

림체전, 섬멸전, 속도전을 벌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계의 요구대로 건설에서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며 살림집구역과 주변지대정리사업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인건

설자들이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진행하면서 인민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투과정에서 그대로 백두산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과시하고 우리 사회의 밀뿌리인 군민대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체 건설자들이 당의 결심이라면 산악도 떠움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끝냄으로써 10월의 하늘가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한마음 우러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헌신분투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전투현장에서 비읍게 된 군인건설자들이 터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에 오래도록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본사기자

나라의 북부고산지대인 백두대지에 또 하나의 영웅신화가 창조되었다.

하늘을 제지르며 발전소언제가 솟아올라 발전소건설의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얼 마 전 경 에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완공을 앞둔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청년들이 이룩해놓은 성과를 두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감하고,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는 오직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신화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그 부름속에 조선청년의 기상과 넋이 살아숨쉬고있는것 아닌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되어 백두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는 조선청년들의 참모습이 응축되어있는 백두대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주시신 백두산영웅청년발전

백두대지에 태어난 영웅청년신화

소란 이름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량강도 백암군의 서두수상류에 건설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공화국의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특히 기본대상인 1호언제는 해발 1000m이상의 산협을 가로지르는 시공상 매우 복잡한 수백m 길이의 2중아치형콘크리트언제이다. 세멘트를 비롯하여 건설에 필요한 물동량을 수백리 떨어진 철도역으로부터 날라와야 하며 더우기 백두대지의 엄혹한 추위로 1년에 반년정도는 언제공사를 진행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10년 남짓이 지난 올해 4월 중순까지만 하여도 언제콘크리트치는 총공사량의 2/3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

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하루빨리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백두산에서 내리시는 길로 이곳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그때 백두대지의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청년돌격대원들이 이룩한 크지 않은 성과를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담아 값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전체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산악파도 같은 억센 신념과 배짱,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받아안은 청년들의 기상엔 백두대지가 울쉴하였다.

온 나라의 이목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쏠리는 속에 청년돌격대원들은 날에날마다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발전소건설장에서 청년들이 이룩해가는 건설성과를 보고받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청년절까지 1호발전소 언제콘크리트타입을 결속하면 또 하나의 조선속도를 창조하는것으로 된다고, 그것은 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적이라는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주시었다.

하여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새로운 조선속도, 영웅적신화를 창조하는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1호발전소 언제건설장에서는 지난 9년간 한해평균타입량의 5.5배이상, 최고타입년도의 2.2배이상의 콘크리트치가 진행되었고 전반적언제가 4월 말에 비하여 평균 30여m나 장성하여 자기 높이에 우뚝 올라서게 되었다.

청년절을 맞으며 발전소 1호언제콘크리트타입을 결속하고 청년돌격대원들이 러친

승리의 함성은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선뜻 믿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현실을 안아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러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 크나큰 걱정 of 분출이었다.

백두대지에 일떠선 아아한 언제의 높이를 어찌 단순한 건설물의 높이로만 보겠는가. 그것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지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기상의 높이, 애국충정의 높이인 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청년들이 일떠세운 발전소언제를 여러곳에서 보아주시면서 멋있다고, 정말 웅장하다고,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울려다보면 하늘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것만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응위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청

년대군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다고 걱정에 겨워 말씀하신것 아니겠는가.

청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청년들을 수령의 부름이라면 천길 물속도 타래치는 불길속도 주저없이 헤치며 기적과 위훈만을 아로새기는 기적의 창조자들로 키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이 일떠세운 시대의 대기념비이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청년들은 위대한 아버지의 태양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청년들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자기 령도자의 결심을 관철하는데서 선봉대의 역할을 다해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출발을 떼고 백두대지에 애국의 땀을 바치며 청춘대학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있기에 공화국은 굳건하고 나라의 미래는 더더욱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맑고 푸른 9월의 하늘, 바라보면 아름다운 산천경개가 비치는듯 하고 다치면 손가락도 금시 파아랗게 물들것 같아 마음도 상쾌해지고 오늘의 아름다운 생활과 래일의 행복이 절로 그려지게 하는 푸른 하늘이다.

준비하게 일떠선 시대의 기념비들과 더불어 우리의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비쳐주는 겨울인듯 맑고푸른 저 하늘을 바라보느라니 위대한 내 조국에 대한 긍지가 가슴 가득 부풀어오른다.

푸른 하늘, 이 세상 그 어디에나 하늘은 있건만 우리 인민은 자기의 푸른 하늘을 무척 사랑하고 자랑하며 소리높이 구가한다.

저절로 맑아진 하늘이 아니다. 계절이 가져온 창공은 더욱 아니다.

파연 어떻게 되어 먹구름만 덮이었던 저 하늘이 자기의 푸르청청을 다시 찾을수 있었고 약소민족의 설움으로 굳어진 주먹으로 먹구름에 뒤덮인 하늘만을 쳐다보며 땅을 치고 눈물

만 씻어야 했던 우리 인민이 저 하늘을 긍지높이 바라볼수 있게 되었던가.

그 물음앞에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네글자가 떠오른다.

인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한생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이 우렛이 안겨온다.

하늘은 태양이 있어 맑

하늘가에 휘날렸고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라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도 울려 퍼졌다.

주체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전승의 기발이 휘날린 창공에 기적의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주체의 사회주의 락원이 거연히 일떠섰다.

어 버 이 수 령 님 의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

으로 높이 모시여 내 나라의 하늘은 한점 구름도 없고 자그마한 변색도 없이 순결하고 청청한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을수 있었던것이다.

태양이 빛나는 하늘에는 그늘이 없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이인위천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펼쳐진 인민의 나라, 백두산의 하늘을 지

구석구석까지 한점 그늘이 없이 비쳐지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멸사복무, 최우선, 절대시, 선 편리성, 선 미학적, 선 후대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의리,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인민에게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정녕 인민사랑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로, 인민은 령도자를 그 하늘의 태양으로. 이것이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루지 못한 하나의 대가정, 일심단결의 화원, 사회주의락원을 이 하늘아래 일떠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태양이 빛나는 내 나라의 하늘은 영원히 푸르다.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의 모습처럼 깨끗하고 복 받은 인민의 웃음처럼 순결하며 무궁번영할 래일처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김순정

내 나라의 푸른 하늘

고 창창하다.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수수천년 조약돌처럼 버림받던 인민을 력사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 인민을 묶어세워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마소와 같이 짓눌려온 인민을 땅과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여 인민이라는 소박하고 평범한 이름이 국호에 새겨지고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항일의 전통, 창창한 미래를 상징하는 람홍색국기가

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일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임무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한 선군정치로 맑고 푸른 인민의 하늘을 지켜주시었다.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열풍, 백두산폭풍으로 시시각각으로 밀려드는 핵전쟁구름, 제재와 압박, 봉쇄의 검은 구름들을 밀어내시고 세계의 하늘가에 선군조선의 위상을 빛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태양

봉으로 펼치고 선군의 총검 버리며 기둥으로 세운 공화국의 하늘가에 태양의 빛발은 더욱 눈부시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사랑, 인민 존중의 새 세기를 펼쳐가고계신다.

그이의 사랑의 빛발은 거창한 시대의 대기념비는 물론이고 외진 섬초소의

평화시기의 영웅들이라 하시며

주제 74(1985)년 9월 어느날이었다.

일본 고베에서 진행되는 제13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제13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돌아오면 축구단과 우승한 선수들을 잘 평가하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번에 우리 축구단이 축구경기에서 1등을 한것은 대단하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축구단이 제13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1등을 한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고있다. 95kg이상급 유술경기에서 1등을 한것도 대단하다. ...

그러시고 지금과 같은 평화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 세계선수권대회와 국제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세계적인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높이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나라의 체육사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민족전통에 대한 생각

그날은 공화국창건 기념일이였다. 명절을 즐겁게 쇠는 사람들과 어울려 평양의 팔골공원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는 늙은이, 젊은이 할것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춤판을 펴고있었다. 한쪽에서는 장기겨루기, 윗놀이, 한창이고 다른쪽에서는 아이들이 줄넘기, 제기차기 등 유희오락을 즐기고있었다. 축전2동에 거주하고있는 79살의 한현옥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명절날뿐 아니라 휴식일이면 의례히 동네로인들이 공원에 모여 춤가락을 넘기곤 한다고 했다. 민족적정서와 향취가 가득히 차흐르는 명절휴식의 이모저모는 그뿐이 아니였다.

그날 그리 크지 않은 칠팔민속관도 남녀로소 손님들로 붐비고있었다. 강냉이국수, 룡두지짐, 떡국, 평양양반, 막걸리 같은 향토질은 민족음식은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고있었다. 조선체육대학 학장 신동규선생과 한식락에 마주앉아 막걸리를 드는 기회도 가졌다.

우리 음식이 제일이다, 민족음식이 눈맛, 입맛 나무랄데

없다는 그의 말에 수긍하며 나는 룡두지짐을 비롯한 음식들을 맛보았다.

생각이 깊어졌다.

조상전래의 생활풍속, 문화전통이 조금도 흐려지거나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서 오는 감흥이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이 머리에 되새겨졌다.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이께서는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세계가 반영되어있다고,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여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있는 창조물들과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을 발전시키고 태권도,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을 장려하며 윗놀이, 뽕이치기와 같은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족음식과 조선옷을 장려하고 우리 말과 인사법을 잘 살리며 고려의학과 민족적건축형식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전통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원수님이시다. 언제나가 인민봉사총국의

김미옥 책임일군이 들려준것처럼 음식전통만 봐도 오늘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일상음식, 별식, 계절음식 등 새로운 민족음식과 자라, 뽕장어를 비롯한 명료리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은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핌에 의해 이루어진 음식문화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다. 그이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현명한 령도에 의해 고유하고 우수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한 민족전통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구현되고있으며 민족적정서와 향취는 사람들의 생활에 차흐르고있는 것이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민족문화와 예술, 민족풍속을 적극 장려하고 민족명절들을 즐겁게 쇠도록 보살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민족공민건설도 완공하도록 하시어 민족의 우수성과 력사적전통을 길이 이어가도록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에 의해 민족전통은 면면히 이어지고있다.

조상전래의 전통적인 생활정서로 9월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민족의 얼과 본래가 자자손손 길이 이어질 민족의 앞날을 보게 되었다.

김장남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

강철수 평양고려국제여행사 사장과 나눈 대담

기자: 평양고려국제여행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지만 관광봉사를 잘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철수: 그렇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아름다운 절승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에는 세상사람 누구나 와보고싶어하는 유명한 관광명승들이 많다.

최근 몇 해 사이에 만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도처에 현대적인 문화 및 체육관광시설들이 새로 일떠서고 관광하부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관광대상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가 나와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되는 원산지지와 동해명승지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광수요가 급격히 오르고있다.

이에 맞게 평양고려국제여행사에서는 우리 나라의 유명한 관광명승들에 대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지만 평양고려국제여행사에서는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국내인민들에 대한 관광봉사를 진행하고있다.

관광객들은 우리 령행사를 통하여 평양과 개성, 원산, 마전, 묘향산, 금강산, 마식령스키장 등 명산들과 력사유적들, 관광명승들을 찾아 즐겁고 유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지난 겨울철기간에 4만 5000여명의 국내외관광객들이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관광을 하였다. 마식령스키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는 하루 평균 700~800여명, 최고 1500여명에 달한적도 있었다.

요즘에는 원산 명사십리의 해수욕장과 마전해수욕장을 찾는 국내외관광객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하고있는데 관광객들이 매우 좋아하고있다.

평양고려국제여행사는 평양고려호텔, 향산호텔, 마전호텔, 마식령호텔과 같은 현대적인 호텔들과 묘향산특산물식당, 개성고려봉사관매소, 사리원고려봉사관매소, 신평고려봉사관매소와 같은 봉사기지를 전국도처에 갖추고있을뿐 아니라 국제관광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조건들도 높은 수준에서 갖추고있다.

그리고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봉사거점들을 갖추고 관광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평양-마식령, 원산-마식령 등 국내관광구간들에는 관광버스도 운영하고있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 령행사들과의 령계밑에 새롭고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보다 편리한 관광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언제나 기쁨과 만족을 느끼도록 하겠다.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던 지난 7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범한 여성무궤도전차운전수에게 투표하신 소식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격정으로 뚫고 하고있다.

절세위인의 축복을 받은 여성대의원, 그는 어떤 사람일까? 얼마전 기자는 그가 일하는 평양무궤도전차사업소 역전대대를 찾아 룡뚝동-평양역행 무궤도전차에 올랐다. 기자가 탄 무궤도전차가 수도의 거리를 기세좋게 달리는데 전차방송에서 차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손님여러분, 손님들이 타고있는 이 전차의 운전수가 바로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투표해주신 허명금대의원입니다. 우리 모두 운전수 동무를 축하해줍시다.》

그러자 차안의 손님들이 여성운전수에게 《그런 영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무궤도전차 148호의 주인공을 찾아서

평을 받아안은 운전수동무가 모는 전차를 타고 출퇴근길을 오갔다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까. 동무들에게 자랑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다.

전차에서 내리는 손님들이 《원수님께서 잡아주셨던 그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라며 저저마다 운전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전차를 몰아가는 허명금운전수의 눈굽은 젖어 있었다. 기자는 놀랐다. 허명금이 운전하는 전차를 타고 오면서도 취재의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전수를 기자가 만났다.

-주행길을 달리며 무슨 생각을 하곤 합니까?

《제가 달리는 주행길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개선문, 창전거리, 평양대극장, 인민극장, 나라길시작점 등 뜻깊은 곳들이 많습니니다.》라며 저저마다 운전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전차를 몰아가는 허명금운전수의 눈굽은 젖어 있었다. 기자는 놀랐다. 허명금이 운전하는 전차를 타고 오면서도 취재의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생각이 가던지... 그 것이 계기가 되어 중학교를 졸업할 때 운전수양성소를 지망했던겁니다.》

-남편과는 언제부터 함께 차를 모는가요?

《운전수로 배치된 첫날부터 우리는 한 전차에서 교대운전수로 일했습니다. 10년후 한가정을 이루었는데 그후에도 한전차를 운전하고있습니다. 30여년간을 전차에서 살다싶이 하지는 우리 부부에게 전차는 살붙이나 같답니다.》

-오래동안 한초소를 지켜오면서 힘들었던 때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차가 제대로 뛰지 못해 손님이 바쁜 출근시간에 걸어가는데 볼 때가 제일 괴로웠고 때로 전차운전을 그만둘 생각도 했습니다. 동요가 일 때마다 별로 한일도 없는 우리 부부를 공로가 많은 운전수 부부라고 내세워주고 보살펴준 나라의 믿음과 기대, 사업소종업원들을 생각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도시민들을 위한 복무의 한길을 걸어가는 자기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일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니는 이들부부의 수고를 헤아려 가까운 곳에 새 집을 마련해주고 TV와 생활용품들도 안겨주며 도와주는 사업소일군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무슨 피와 열을 가진

려놓았다. 그리고는 《현철이 아버지, 미안해요. 현철이와 함께 식사하세요.》라고 편지를 써놓고 일터로 향했다. 그날 밤, 자정을 가까이하여 전차를 몰고 사업소구내에 들어서는데 뜻밖에도 남편과 아들이 맞아주었다. 그들의 손에 허명금이 남편을 위해 준비한 생일 음식이 그대로 들려있었다. (아직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영문을 몰라하는 나에게 남편이 웃으며 (당신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먹겠소. 자, 늦었지만 전차에서 모두 함께 식사하세요.) 라고 할 때 눈물이 불쑥 솟구쳐더군요.》

전차안에 차린 생일상, 비록 소박하였지만 이들은 누가보다 행복했다. 진수성찬을 차린들 이보다 기쁘라. 이런 멧은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서 생의 희열을 찾는 사람들만이 맛볼수 있는 기쁨이고 보람인것이다. 저 하늘의 등근 달도 이들에게 축복의 밝은 빛을 뿌려주었다. ...

처 헌신해온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앞으로로도 인민의 대표답게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자각과 본분을 다해나가고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저는 꿈을 꾸는것같아 막 팔을 꼬집었습니다. 태양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기쁨자욱이 어려있는 저의 이 두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그이께 고마움의 인사도 제대로 울리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평범한 무궤도전차사업소 운전수인 허명금이 온 평양시민들아니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길거리에 나서면 못사람들이 허명금을 둘러싸고 부러움과 찬탄을 금치 못하고 그가 사는 집에도 때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의 인사를 해주었다. 룡뚝무궤도전차사업소에서 허명금운전수만이 아닌 자기 사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받아안은 대해같은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격정을 터뜨리고있다.

《자본주의사회같은면저같은 평범한 운전수가 대의원이 다 뭐고 어떻게 절세위인의 축복속에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를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끝났다. 그러나 여운은 컸다.

근로하는 인민을 이 세상 제일로 높이 내세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갈 애국의 열의가 허명금의 가슴에 짙게 차있다. 오늘도 이들부부가 운전하는 무궤도전차 148호는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 보람찬 애국의 주행길을 아름답게 수놓아가고있다.

주행길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

《운전수동무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겠습니까?》라는 손님들의 요청에 성미란차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허명금운전수가 30여년을 하루와 같이 남편과 한



다. 그때마다 여성운전수가 운전하는 버스를 보며 생각되는바가 많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손님들의 출근보장을 위해 남모르게 수고를 바쳐가는 여성운전수가 얼마나 돋보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어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처럼 말없이, 소문없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인민들을 위한 령객봉사소조를 꾀없이 지켜온 이들의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지난해 7월 19일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민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룡뚝무궤도전차사업소 역전대대 운전수 허명금에게 투표하시고 몸소 그를 만 나주시었다.

이날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안고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다바

본사기자 고영숙

현 정세의 흐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자

대화와 전쟁소동은 량립될수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북 남고위급급접촉으로 마련된 완화의 분위기를 해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로골화되고있다.

15일 인천에서는 그 무슨 《공공포작전전승비제막식》이니, 《인천상륙작전재현》이니 하는 대결놀음이 벌어졌는가 하면 19일에는 《제65주년 서울수복기념행사》라는 것이 열리겠다고 한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승전》의 《의의》를 부여해보려고 1950년 조선전쟁의 패전 《용사》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 그 《기념행사》들을 보여주기도 하겠다고 한다.

우리 겨레와 세계가 북 남관계의 진전을 주시하고있는 때에 벌려놓은 그러한 《기념행사》라는 것들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우선 남조선호전세력이 구시대적인 대결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 것이다.

그 《기념행사》라는데는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준 1950년 조선전쟁을 상기시킨다.

외세가 강요한 그 몹시 리치는 전쟁을 겪은 우리 겨레가 바라는것은 다시는 참혹한 재난이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북과 남이 지난 8월 고 위급급접촉을 가진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보직전의 전쟁위험을 가시고 관계개선의 새 역사를 펼쳐기 위해서였다.

외세가 도화선에 불을 단 조선전쟁의 과거를 재현한다는것 자체가 북 남 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부정이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소망에 대한 엄연한 도전인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대화 상대방인 북을 《주적》으로 여기는 고약한 버릇을 버리지 않고있는것도 문제이다.

그 《기념행사》라는데서 나온 《원점타격》이니, 《남침》이니, 《서울수복》이니 하는 발언들은 철두철미 대화상대 방인 북을 《주적》으로 한것이다.

더우기 상륙작전이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을 고려할 때 《인천상륙작전재현》놀음의 불순한 목적을 짐작할수 있다.

해마다 외세와의 야합 밑에 진행되는 대규모북 침불장난소동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전쟁연습때에도 《평양점령》을 노린 상륙연습이 언제나 연습의 최절정을 이루었다.

최근 남조선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작전계획 5015》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는 도발적, 대결적음모를 놓고보아도 이번 《기념행사》놀음들은 명백히 조선에서 전쟁의 불을 다시 지르려는 위험천만한 소동인것이다.

구름이 짙으면 비가 오는것처럼 그러한 놀음들이 북 남사이에 대결의 불씨로 되고 나아가서 제 2의 조선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다.

대화와 전쟁소동은 량립될수 없다.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도발, 대결, 전쟁을 피하고있는것은 대화자세가 아니며 관계개선에 대한 옳은 태도가 아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시대와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망동이 어떤 화를 불러오겠는가를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강현철

위의 핵이다. 핵을 인류의 머리에 처음으로 떨쳐 준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수많은 핵무기들을 전개해놓고 자주적인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위협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걱 우심해지고있고 힘이 있으면 참혹히 짓밟히고 침략을 당해도 어디에 가 하소연할데도 없는 오늘의 국제현실에서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병진로선은 가장 정당한 애국애족의 로선이

어이 이루어보려는 흥심의 발로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부질없는 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적대세력들이 핵을 포기하라고 해서 핵을 포기할 공화국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북 남관계 악화만을 부채질하는 위험천만한 《북핵공조》 놀음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김연희

위험천만한 《북핵공조》 놀음

최근 남조선당국의 《북핵공조》 놀음이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그들은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총회에 외교부 2차관을 보내어 《북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한다. 미국과 《북핵문제》를 조율한다

다 하고 분주함을 피워내고있다. 그런가하면 유럽연합과 함께 《북의 핵개발을 강력히 규탄》 한다는 공동언론발표문을 냈고 북의 핵시험에 대해 《단호히 대응》 하겠다고 뉘서도 쳐대고있다.

이것은 외세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추종하여 국제무대에까지 나가 동족대결을 일삼는 낯뜨거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핵은 미국의 핵과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자기를 지키고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핵 위협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이다. 그 근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해가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악랄해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고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는것은 천만번 정당한 자위의 조치이다. 누구도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안녕을 지키려는 공화국의 핵억제력에 대해 이래저래라 할수 없다. 미국의 침략과 전횡이 갈수록

고 그 옳은 길에서 공화국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이러한 자위적조치를 《도발》로 결코드는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 아닐수 없다.

오늘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위협하는 핵무기는 다름아닌 침략적인 미국의 핵무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무기와 핵능력강화를 위한 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면서 동족의 정



평화통일을 념원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인 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목요집회를 가지고 북 남합의가 반드시 리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난 8월 조선반도에 엄혹한 전쟁정세가 조성되었을 때 남과 북이 고위급급접촉을 가지고 공동

남북합의 리행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막아내자

남조선의 민가협이 주장

보도문을 발표하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번 남북합의는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피력하였다.

오는 10월 남 북사이에

홀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민족분열로 인한 고통을 남북관계개선과 자주통일에 의해 하루빨리 씻어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이번 합의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합의로서 반드시 리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남측 당국자들과 미국은 《작전계획 5015》 등을 발표하고 합

주권국가의 명당한 자주적권리, 특별의 자위적조치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국장과 원자력연구원장은 공화국의 위성발사와 핵억제력강화와 관련한 원칙적립장과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보수당을 비롯하여 여야정객들, 외부의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북의 시사가 《위성발사를 위장한 장거리미사일발사》니, 《위협》이니,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니, 《대가를 치를것》이니 하며 무슨 큰일이나 나는것처럼 벽적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공화국이 하는 일을 덮어놓고 범피시하는 적대의식이 낳은 소동이며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용납 못할 도발소동이 아닐수 없다.

현시기가 우주개발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통신 및 기상관측, 자원탐사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있다.

심지어 어떤 나라가 군사위성, 간첩위성까지 쏘아올려도 문제로 되지 않고있으며 그 무슨 《위반》이나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고있다. 더우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미국은 우주에 술한 군사위성, 간첩위성을 띄워놓고 지구상 곳곳을 렴탐군처럼 감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해도 일없는 위성발사를 유독 공화국이 하면 안된다는것이야말로 황당한 2중기준의 극치이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유린행위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자주적인 주권국가이다. 공화국이 위성발사를 어느 시각에 어디에서 하든 그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이며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도 부합되는 당당한 주권행사이다.

공화국의 위성발사는 명백히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으로 되고있다. 그런데 그것이 《장거리미사일발사》니, 《위협》이니 하고 떠드는것은 황당한 꾀변이 아닐수 없다. 저들은 위성을 운반로켓에 실어

우주에 올려보내지 않고 뭐 코깁으로 쏘아올리는가.

그런데도 저들은 해도 되고 공화국이 하면 《미사일발사》, 《유엔결의위반》이니 하고 북핵소동을 피우는것이야말로 반공화국압살에 환장한자들의 추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를 유린하고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진짜도발자, 조선반도에 열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며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핵억제력강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화국의 핵보유는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조치이다.

공화국을 핵보유에로 떠민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공화국의 제도전복을 내놓고 추구는 보다 로골적이고 비렬한 수법들로 심화되고있다.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억제력강화를 천명한데 대해 목에 피대를 세우는 미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해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군부도 사거리가 800km인 미사일시험을 진행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것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또한 공화국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젠지 핵퇴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사태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미국의 핵동에 각성을 높여야

《북은 약속을 어긴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것은 북 남고위급급접촉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후 미국에서 나온 소리이다.

미국의 국무성이며 국방성, 대조선전문가들이 북 남관계개선을유지함과 관련하여 저저마다 하는 소리는 《두고보아야 한다.》는것이다.

미국이 《북의 10월도발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광분하는가 하면 심리전방송이 《북의 태도를 바꾸는 최선의 해법》이라는 꾀변을 늘

어놓고있는것도 북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여 좋게 나아가는 북 남관계의 흐름에 차단봉을 드리우려는 로골적인 방해책동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북 남관계개선을유지함과 관련하여 저저마다 하는 소리는 《두고보아야 한다.》는것이다. 북 남의 대화기류를 전쟁 연습의 총포성으로 짓눌렀고 각종 충격적인 도발사건들을 일으켜 북 남이 화해와 관계개선에로 나아가지 못하게 썩기를 치고 적대감을 조장하여 왔다.

지난해에 북과 남이 홀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적실자실무접촉을 할 때에도 미국은 남조선의 상공에 전략핵폭격을 퍼뜨리고 공화국의 중심을 겨누는 핵타격연습을 벌려 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키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년 초부터 온 한해동안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전쟁연습의 불장난을 벌려 북 남관계악화를 부채질해온것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에 군사분계선상에서 대북심리전방송이 재개되고 군사적충돌과 전면전쟁의 위험이 조성되도록 뒤에서 각본하고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그런 미국이 북과 남이 화해와 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것을 달가와할리 만무하다.

미국으로서는 북 남관계가 계속 악화되어있고 조 선반도가 항상 긴장하여야 저들의 군사장비들을 더 많이 팔아먹고 동북아

시아지역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추구하는데도 유리하다. 그래서 앞에서 북과 남의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며 북 남사이에 불신을 계속 조장하는 모략소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을 그냥 묵인하고 거기에 맡려두면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합의의 리행이 제대로 될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높아질수밖에 없다.

민중운명개척의 주인은 다른 그 누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북과 남이 외세의 민족리간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할때이다.

힘들게 마련한 소중한 북 남합의가 헛되게 되지 않고 북 남관계진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북과 남은 뜻과 마음을 합쳐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김 정 혁

의를 파란내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현 집권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이것은 남북합의 정신과 배치되는것으로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언명하였다.

합의리행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범죄적인 《북인권법》 조작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북인권법》 조작이 가져올 파국적후과를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의 여야당이 《북인권법안》의 조항들을 기본상 합의 하였다고 떠들면서 이를 《국회》에서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남조선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지난 10년이상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인권법) 의 국회통과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떠드는가 하면 야당은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니, 《북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니 뭐니 하면서 너절한 야합행위에 대해 구구히 변명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여야당과 반통일보수세력의 《북인권법》 조작성을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정치적도발로, 공공연한 체제대결선언으로 낙인하면서 준렬히 단죄구탄한다.

지금 온 겨레는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북남고위급긴급접촉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가 대화와 협력, 평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더우기 지금은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을 통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일정에 오르고 북남당국사이의 회담도 앞두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 《국회》가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조작성내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고 반공화국대결을 격화시켜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되돌려세우는 용납 못할 도발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 《국회》가 《북인권법》 조작성동에 광분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추악한 반민족적범죄가 아닐수 없다.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고 인민을 하늘

처럼 받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인민의 지상락원인 우리 공화국에는 적대세력들이 떠들어대는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남조선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모처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지금 남조선 《국회》가 대결적인 모략악법인 《북인권법》을 다시 내려고 통과시키려고 발광하는것은 체질적이고 병적인 동족대결흥심의 발로로서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북인권법》 조작성을 북남합의로 고조되고있는 대화와 관계개선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위로 반대배격해 나르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더우기 경악을 금할수 없는것은 남조선 《국회》가 대결적인 《북인권법》을 떠들어대는 그 입으로 그 무슨 《남북국회회담》을 운운하고있는것이다.

대화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그 무슨 《합의리행》과 《관계개선》, 《대화》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결과 속이 다른자들의 치졸한 여론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표리부동한 시정배들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남조선의 정객들이 리성이 있다면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주제넘은 입방아질을 하지 말아야 하며 세계최악의 인권폐해지대인 제 집안꼴이나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돌도 없

는 극악한 인권의 불모지이다.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종북》, 《리적》으로 몰려 탄압과 박해를 당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무덤도 바로 남조선이고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으며 삶의 막바지에서 허덕이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세계최고를 기록하고있는 인간생지옥도 남조선이며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무참히 수장되는 대참사도 모자라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까지 야수적으로 탄압당하는 전대미문의 인권폐해지대도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여의도에 틀고앉은 정객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합리화하고 극소수의 특권층들과 재벌들을 위한 법 아닌 《법》들을 조작성내면서 온갖 부정부패행위만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에 그 무슨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 할바는 하지 않고 인민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민족분열에 기생하며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데만 몰두하다나니 오늘 남조선이 인권유린에서 세계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이미 《북인권법》 조작성동과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라는것을 선포하였다.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단호한 립장은 오늘도 래일도 변함이 없다.

남조선의 여야당과 당국자들은 《북인권법》 조작성이 가져올 파국적후과를 명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제 104(2015)년 9월 16일
평 양

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는가

북남사이 어렵게 마련된 관계개선 분위기를 살려나가자면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의 여야당은 그 무슨 《북인권법안》이라는것을 여야가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국회통과가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환성을 지르고있다.

북과 대화를 하겠다면서 동족을 헐뜯고 모해하려는 《인권》 모략소동에 갈수록 더욱 혈안이 되고있으니 결과 속이 너무도 판이한 남조선정객들이 아닐수 없다. 여기에 일부 야당까지 합세하

여 맞장구를 치고있는 모습은 겨레의 환멸을 자아낸다.

북남관계개선과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도저히 량립될수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자그마한 의향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 시각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모략적인 《북인권법》 조작성동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소중한 합의가 제대로 리행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리철웅

감히 누구에게 삿대질인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인권》 소동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

동족을 모해하고 헐뜯다 못해 이제와서는 법 아닌 《법》, 동족대결의 악법인 《북인권법》이라는것까지 채택하려고있으니 북남관계를 과연 어디로 끌고가자는것인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제일로 여기고 인민을 위해 국가가 줄수 있는 혜택을 다 베풀어주는 우리 공화국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의 나라이고 인권의 천국이다. 적대세력이 아무리 《북의 인권》이 어떻소해도 그것이 우리 인민에

게는 한갓 지나가던 개가 짖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진짜로 피고석에 앉아야 할 죄인은 남조선 사람 못살 세상으로 만들고 《세월》 호참사, 《돌고래》 호참사와 같은 끔찍한 참변들을 매일 매 시각 빚어내고있는 남조선위정자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제 염통이 썩은줄 모르고 남에게 삿대질만 해대는 심보고약한자들은 민심의 규탄배격을 면할수 없다.

평양시 평천구역행정위원회
교장 김명순

제아무리 《인권》 나발을 불어대도

나는 공화국의 평범한 공민이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려가고있다.

주권기관선거에 참가하여 자랑스럽게 애국의 한표를 바치고 병이 나면 치료받을 걱정, 자식을 공부시킬 걱정, 쓰고살 걱정을 모르며 사는데 《북인권법》이라는게 무슨 말라빠진 《법》인가.

인간의 자주적이고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는 이런 고마운 나라와 제도에 대해 험담하다 못해 가증스러운 《북인권법》까지 채택하려 발광하는 남조선의 여야당과 반통일보수세력은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이 아닐수 없다. 인민이 자

주적권리를 누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게 그렇게도 배아프고 고마운 우리 제도가 그렇게도 눈에 가시같은가.

존엄높은 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선동하는데만 열을 올리는자들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적대세력들이 《북인권》이니 뭐니 하는 허튼 나발을 제아무리 불어대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결코 흐리게 할수는 없다.

하늘에 대고 아무리 침뱉어야 제 얼굴에 떨어지기마련이다.

평양시 서성구역 장경1동
최현룡

북남합의에 역행하는 대결망동

최근 남조선에서는 북남합의에 역행하는 온갖 못된 행위들이 매일 같이 벌어지고있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여야당과 당국이 《북인권법》을 채택하려고 하는것도 그러한 행위의 일환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여야가 마주앉아 그 무슨 《북인권법안》의 주요내용들을 합의한데 대하여 《10년간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북인권법) 의 국회통과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기고만장해하고있다.

남조선당국과 여야정객들이 이러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체제대결의 흥심을 어떻게 하나 이루어보려는 범죄적책동이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준다.

지금 온 겨레는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북남고위급긴급접촉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가 대화와 협력, 평화의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이런 속

에서 얼마전에는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되고 합의문이 채택되어 겨레를 기쁘게 해주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당국이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조작성내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은 교전직전으로 치닫던 북남관계를 극적으로 돌려세운 귀중한 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달아오른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결망동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 《국회》가 《북인권법》 조작성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추악한 반민족적범죄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도 《북인권법》의 여야합의와 관련하여 《지금 시점에서 북을 자극할수 있는 (북인권법) 이야기가 나오지는않는다.》, 《(북인권법) 이 통과된다면 북남합의로 고조된 대화기류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다.

더우기 경악을 금할수 없는것은 남조선 《국회》가 대결적인 《북인권법》을 떠들어대는 그 입으로 그 무슨 《남북국회회담》을 운운하고있는것이다.

대화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그 무슨 《합의리행》과 《관계개선》, 《대화》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결과 속이 다른자들의 치졸한 여론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은 이미전에 《북인권법》 조작성동과 같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로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과 여야정객인들은 동족대결적인 《북인권법》 채택이 북남관계에 어떤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겠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북인권사무소》 폐쇄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력사의 진실은 가리울수 없다

세월이 흐른다고, 또 누가 부정하고 뜯어고친다고 해서 역사는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력사의 진실은 오직 하나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상해림시정부》청사 재개관식이 열린 것과 관련하여 그 무슨 《법통이 시작된 곳》이니, 《다양한 독립투쟁의 근거지》니, 《우리 민족의 주권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도》했다느니 하는 황당한 소리들을 늘어놓은것은 역사학자들을 비롯하여 온 겨레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있다.

세상이 다 아는 조국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철면피하게 외곡하고 미국에 의해 조작되고 조종되는 남조선 《정부》에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여해 보려는 철면피한 책동이기에 때문이다.

력사를 따지고보면 《상해림시정부》와 남조선 《정권》은 아무런 연연도 없다.

8.15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승만과 같은 저들의 손때 묻은 친미주류들과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한 민족반역자들로 《단독정부》를 조작하고 반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았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상해림시정부》관계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의 배후조종 밑에 이승만역도는 《상해림정》 주석이었던 김구가 민족자주와 련공합작을 주장한다고 하여 정치적탄압을 가하다 못해 백주에 암살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저들의 더러운 집권야망실현을 위해 《상해림시정부》관계자들을 비롯한 독립운동지사들을 정치적으로 매상하고 제거해버린것이 현 보수 집권세력의 조상들이다. 《상해림정》의 법통을 깬그리 말살한 범죄자들의 후예들이 그 무슨 《법통》이니, 《정통성 계승》이니 하고 떠들어대는것은 저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을 합리화하고 역사를 우롱하는 낯간지러운 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상해림시정부》가 《주권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도했다.》느니, 《독립투쟁의 근거지》니 하고 떠든것도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 역사를 심히 외곡한 용납 못할 것이다.

력사적사실자료들을 들추어 보면 《상해림정》이나 그 산하의 《광복군》은 자기나름의 반일투쟁을 벌인다고 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해방에서 결정적인 력량은 되지 못하였다. 《상해림시정부》로 말하면 3.1인민봉기후 30여명의 해외 망명객들이 1919년 4월 중국 상해의 프랑스조계지에서 《림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국무원》과 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군부, 교통 등 6개 부의 조직으로 만들어낸 순수 명목상의 《정부》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국내외의 절대 다수 조선사람들은 《상해림시정부》라는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있었다. 《상해림시정부》는 나온 첫날부터 조직적이며 거족적인 반일항쟁이 아니라 《독립청원서》를 들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파리강화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장들을 찾아다니며 호소와 애원으로 나라를 찾아보고 하였다. 특히 일제가 중국본토를 침공한 후 《상해림정》은 장개석의 국민당정부를 따라 거처를 빈번히 옮기면서 간판이나 겨우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다.

또한 끊임없는 과정과 헌법 개정, 개각으로 인한 내부분렬, 극심한 재정난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니니 결국 어떤 반일투쟁정책제시나 실현도 제대로 할수 없었다. 오죽했으면 《상해림정》의 주석이었던 김구가 해방후 경제적난으로 정부의 이목을 유지할 길도 막연하였다. ...나는 《림정》청사마루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거지중에서도 상거지였다고 회고하였는가.

《상해림정》의 직속군이었던 《광복군》 역시 우리 인민의 반일해방투쟁대오에서 극히 미미한 세력을 차지하고있었다.

중일전쟁발발후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의용병》들과 장개석국민당군에 복무하던 조선인들로 1941년 9월 17일 중국 중경에서 조직된 《광복군》은 8개 처와 6개 지대로 편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림정》이 자기산하에 《광복군》같은 무장력을

내온것은 그들의 반일활동에서 하나의 전진이었다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세력은 력사로 보나 구성으로 보나 무장장비로 보나 매우 청소하였으며 본격적인 반일무장투쟁을 벌리기에는 너무나 미약하였다. 《림정》관계자들도 《광복군》의 발전은 한도가 있는것으로 보았다. 한 민족주의자가 해방된 후 해외반일력량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림정》세력의 주도권확립이 어렵다고 한것이라든가, 《상해림정》은 조국해방에 대처할 아무런 준비도 없이 8.15해방을 맞이하였다고 솔직한것은 이런 실정의 반영이었다.

또 일제도 《광복군의 진용은 립시정부의 과도한 선전에도 불과하고 매우 빈약하며 각지대원은 1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매우 빈약한것으로서 거의 불만 한 활동이 없이 지내고있다.》고 하면서 중요시하지 않았다.

《상해림정》과 《광복군》은 결국 8.15해방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체되고말았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해방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일찌기 10대의 어린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혁명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께서서는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는 무자비로 맞서싸워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 진정한 독립의 방략을 밝혀주시고 주체21(1932)년 4월 25일 상비적혁명무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피 어린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어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겨레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시었다.

당시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항일무장대오가 조직된 1932년에만도 반일인민유격대가 진행된 전투회수는 984회, 여기에 참가한 인원수는 연 1만 3 47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은 더욱 확대되어 1933년도에 북부조선에서 활동하는 유격대원수는

1만 3 000명이나 되었으며 당시 《동아일보》 1935년 2월 1일 호에 실린바와 같이 《1934년도에 압록강국경지대에서 무장한 빨찌산들에 의한 습격회수는 600회에 달하》였다.

또한 이전 소련출판물들의 자료에 의하면 1939년에 조선인민혁명군수는 6만명, 그들이 벌인 전투회수는 3 894차나 되었다.

조국해방을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항일투쟁은 특히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양양되었다.

태평양전쟁발발후 조성된 내외정세의 발전추이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3년 2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으로 일제침략군에 섬멸적타격을 주는것과 함께 여기에 호응하여 전인민적봉기를 일으키며 전민항쟁무장조직들의 배후련합작전을 벌릴데 대한 조국해방 3대토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일제의 패망이 눈앞에 막대한 1945년 5월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세우시고 그해 6월 발표하시었다.

당시 멸망에 직면한 일제는 북부조선과 북부국경일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제1선》으로 삼고 여기에 100만관동군과 조선강점군 12개 사단, 12개 독립훈성단무력을 집중배치하는 것과 함께 《국경요새》, 《항구요새》들을 꾸려 《철통의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일제의 기도를 환히 꿰뚫어보신 수령님께서서는 침략무력의 기본집단이 도사리고 있는 두만강하류와 북부조선일대의 《요새구역》을 제1차 타격대상으로 정하시고 북부국경일대의 비밀근거지와 립시비밀근거지, 훈련기지들에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만단의 결전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의 시각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던 시기에

고 침략군의 각 부대들은 헤어나갈수 없는 궁지에 빠져 갈망질망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총공격작전을 개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대일선전포고를 한 소련군도 일제침략군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쏘만국경과 통화지방의 일제관동군은 대혼란에 빠져 전면적으로 와해되고 말았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센 공격으로 일제가 《제2결전장》, 《최후의 제1선》으로 떠돌던 조선에서도 일제침략군은 급속히 괴멸되었다.

더는 지탱할수 없게 된 일제는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항복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조선인민은 이처럼 바라던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미국과 그 주구인 리승만역도에게 침을 뱉고 돌아선 김구가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때 아버지수령님을 만나 뵈고 그이가 가시는 길에 조선민족이 나아가갈 길이 있다고 하면서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을 드러려 하였던것은 항일의 전설적영웅, 민족해방의 은인에 대한 전민족적인 경모심의 발현으로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항일의 전설적영웅, 민족재생의 은인을 우리러 해방정국에 올려나온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오늘날 북과 남, 해외, 사상과 정견을 초월하여 온 겨레의 심장속에서 계속 높이 울리고있다.

력사적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정통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것인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온 겨레의 통일독립열망을 짓밟고 미국의 총대로 세워졌으며 친미굴종과 동족대결의 수처스러운 자육만을 남겨온 남조선 《정권》이 《정통정부》로 될만 한 하등의 리유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항일투쟁의 역사를 외곡하려 하여도 력사의 진실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

항일의 총성이 높이 울린 백두산은 조국해방을 안아온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철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세세년년 길이 전해주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영환

인권의 옥에서 울리는 소리

《 내 꿈은 생존 》

얼마전 남조선잡지 《주간경향》에는 《내 꿈은 정규직》도 모자라 《내 꿈은 생존》이라 하는 제목으로 어느 한 민간단체 회원이 쓴 글이 실렸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얼마전 무명의 연극배우 두명이 며칠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어서도 그들은 《이름》대신 《무명》으로 호명됐다.

2011년 어느날 젊은 작가가 생활고와 오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는 밤이나 김치가 있으면 문 좀 두드려주세요.》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글이다. ...산다는것이 참 거지같다 생겼다. ...한동안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스마르폰게임을 유행했다.

...우리가 꿀수 있는 꿈이 언제부터 《정규직》이 될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세웠던 구호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사람들은 《내 꿈》이 누구의 꿈인지 의심하고 따졌다. 《대통령》후보가 제시하는 구호치고는 매우 추상적이라 생각했지만 《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대통령》이니 적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굶어죽을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꿈》이었다. 평장히 기분나쁜 《개꿈》이었다.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게임속의 인물이 사실 우리 모두가 리는 모른척 살아간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꿈》은 간단하게 무시한다. 《무명》연극배우가,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젊은 작가가 작은 방에서 웅크리고 죽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꿈을 좇지 말고 눈을 낮춰 취업하라, 안되면 중등이라도 가라고 옥박치르며 등을 떠밀거나 《꿈 유러로는 밥 못 먹고 산다.》며 누군가의 삶을 《밥》으로 간단하게 치환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지금 우리 사회가 《내 꿈은 정규직》도 모자라 《내 꿈은 생존》으로 바뀌고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퇴물이되는 비극의 목격자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본사기자

로동시장구조개악안반대투쟁에 나설것을 주장

남조선의 진보련대가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동시장구조개악안반대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민주로총이 참가하지 않은 반쪽짜리 《로사정위원회》에서 끝내 로동시장구조개악안에 대한 합의론에 대해 비난하였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로동시장구조개악안을 《국회》에서 상정시키기 위해 협박, 기만을 일삼은 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현 《정권》은 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반로동 《정권》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만일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업주측의 부당한 전횡에 맞서 싸우는 로조원들이 해고로 내몰리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저들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로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현 《정권》과 재벌의 야합으로 산생된 개악안은 완전무효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쌓이고쌓인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단체가 로동자들과 함께 로동시장구조개악안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의 공공운수로조, 보건로조, 금융로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로조원들이 남조선로동시장구조개악책동에 항의하여 12일 서울 종로구에서 집회를 가지었다.

그들은 현 《정부》가 쉬운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확대 등을 노린 로동시장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시간까지 정해놓고 로동자들에게 양보만을 강요하는 당국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현재 재벌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자금의 일부만 돌려도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서 《정부》는 로동시장구조개악에 앞서 재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규탄하였다.

민영화와 비정규직, 하청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부를 축적한 재벌과 《정부》의 일방적인 로동시장구조개악책동이 계속된다면 로동자들은 총파업투쟁으로 맞서싸울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민족의 향취 넘치는 씨름경기

씨름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제12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민족씨름경기에는 평양시와 각 도에서 선발된 10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비교씨름과 몸무게급별씨름으로 나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된 씨름경기에는 출전한 선수들은 안걸이, 무릎걸이, 빗장걸이, 발목치기, 돌립배지기, 뒤집기 등 평시에 련마한 다양하고 재치있는 씨름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몸무게 55kg급경기에서는 남현일(함경북도), 60kg급경기에서는 박철룡(황해남도), 65kg급경기에서는 김대일(강원도), 70kg급경기에서는 리철영(평양시), 75kg급경기에서는 장현우(평양시), 80kg급경기에서는

김성준(평양시), 80kg이상급경기에서는 박광철(평양시)선수들이 1등을 하였다.

이번 경기에서 씨름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중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것은 비교씨름경기였다. 나이와 몸무게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는 비교씨름경기는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각 도에서 선발된 씨름장사들이 모여 승자전으로 진행된 비교씨름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했다. 비교씨름결승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상으로 주게 될 대황소의 무게는 1t 100kg. 과연 누가 대황소와 금소방울의 주인이 될 것인가?

결승경기는 드디어 평양시의 남광일선수와 평안북도의 조명진선수가 이에 진행되었다. 체격이 우람차고 균형이 잡힌 선수들이 입장하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드디어 결승경기가 시작되자 두 선수는 황소같은 기운을 쓰며 씨름판이 좁다하게 붙어돌아갔다. 아슬아슬한 동작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속에서 우리선수 이겨라, 힘내라라는 열띤 응원이 울려나왔다.

선수들이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묘한 수법들을 련이어 활용하였으나 1회전경기는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났다. 2회전에 들어가 조명진선수는 상대방의 약점을 리용하여 자기보다 10kg 더 나가는 방법으로 씨름판에 넘어뜨리었다. 3회전에서도 조명진선수는 상대선수에게 숨들릴 틈을 주지 않고 련속공격을 들이쳤다. 드디어 남광일선수의 손이 먼저 땅에 닿았다. 《와-》하는 환성과 아쉬움의 목소리... 비교씨름경기에서는 평안북도의 조명진선수가 영예의 1등을 하였다. 2등과 3등은 평양시의 남광일

선수와 함경북도의 김철춘 선수들이 하였다.

제12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종합순위에서는 평양시가 1등, 강원도가 2등, 평안북도가 3등을 하였다. 시상식에서는 비교씨름경기에서 1등을 한 평안북도의 조명진선수에게 1t 100kg이나 되는 대황소와 금소방울, 상장이 수여되었다. 경기장이 떠나갈듯 한 환호속에 그는 대황소를 타고 경기장을 한바퀴 돌았다. 대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듯 《음-》하고 영각소리를 내었다. 우승의 기쁨을 안고 조명진선수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응원자들에게 금소방울을 힘껏 흔들었다. 이번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과시하고 온 나라에 민족의 흥취 넘쳐나게 하는데 기여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호



효능높은 고려광복항생제

황경피나무가 1km²당 한 대만 서있어도 그 주위의 나무들이 병충해의 피해 없이 잘 자란다고 하여 예로부터 이 나무를 가리켜 《산림의사》라고 불려왔다. 하기에 우리 선조들은 열물내기작용, 청혈작용, 항염증작용이 매우 강한 황경피나무껍질을 전통적인 고려약으로 널리 써왔다.

최근 공화국의 은정제약소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황경피나무껍질

의 주요성분인 베르베린을 첨단기술로 추출하여 레베린주사약을 개발하였다.

박봉옥 은정제약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레베린주사약은 간을 보호하고 소화진위작용, 담즙배설작용이 센것으로 하여 소화계통질환에 효과적일뿐 아니라 광복항생작용이 강한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레베린주사약은 지혈작용, 진통진경작용, 말초혈관확장작용, 피를 맑게 하는 작용, 혈압을 낮추는 작용으로 하여 간경변 및

다한 조건의 지리》, 《8도 대표의 8도자랑》 등 조선의 력사와 지리, 자연경개와 지방별 특성이며 물산

을 자랑하는 글들과 《남만주행》 등과 같은 기행문을 그 대표적인 실례로 들수 있다.

잡지 《개벽》에는 또한 《외국인이 본 조선》이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이 라는 제목하에 도이철

참다운 인권 존중의 세상

얼마전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나는 북을 방문하게 되었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생소한 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기분이란 참 묘한것이였다. 두려움, 긴장, 의문, 호기심 이러부른것이였다.

사실 내가 이번에 북에 찾아간것은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어서였다.

행성에 어지럽게 나도는 《북인권》설, 같은 동포지만 객관적립장에서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싶었다.

허나 이번 려행길은 인권 문제에서는 식견이 있다고 자부했던 나를 《바보》로 만든 계기로 되었다.

창피스럽기도 하지만 나 같은이들을 위해 그 이야기를 몇자 적으려 한다.

일류급으로 꾸려진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서부터 보이는 활기에

넘친 사람들의 얼굴을 미국과 서방세계가 말하듯 《기아》의 표상이 아니였고 만발하는 화원과 같은 거리와 도시에서는 《붕괴》의 자그마한 기미도 없었다.

북주민들은 서방세계가 《북붕괴》와 《인권》을 국제무대의 《단골메뉴》로 선정했어도 자기들과는 전혀 무관한듯 한 표상이었다.

정말일까?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몇몇 주민들을 만났다.

그들에게서 북의 인권 실상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저마다 웃는것이였다. 그 모든것은 자기들이 사는 제도가 다 보장해주는것이요 또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누리고있는 권리이니 설명이 필요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것이였다.

《유식》을 뽐내려던 내가 순간에 공화국인민들이 누리고있는 웅당한 권리도 모르는 《무식한 바보》가 되어버렸다.

제도가 모든것을 보장해준다? 한생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대답이 아닐수 없었다.

육류아동병원을 찾았을 때 나는 또 한번 《바보》가 되었다.

건물, 의료시설, 봉사성 어느것에서나 다 훌륭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입원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위해 나이별로 유치원과 학교에서와 똑같은 수업을 하는것이였다.

소학교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실을 돌아보던 나의 입에서는 《치료비에 학비까지 합하면...》하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것을 돈으로 계산하던 타성이 저도 모르게 살아났던것이다.

《치료비? 학비?》 아이들의 놀란 눈이 일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혀를 깨물었다.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한것이 미안하기도 하여 한 어린이에게 물었다.

《네가 입원할 때 부모들이 돈을 얼마나 물었는지 아냐?》

《돈이요? 우리 엄만 내 출생증만 보였는데요. 아저센 그런것도 모르나요?》

물었다. 출생증 하나면 병원도 학교도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라 반기는 놀라운 현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면서도 그들을 위해 바치는 모든것을 《후대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집약하는 북의 사회제도, 이 현실을 너무도 몰랐다.

북의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이 집약된 육류아동병원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 현실이 꿈만 같았다.

북주민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권리가 자본주의사회와 같으면 얼마나 많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였다.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있으며 치료비는 얼마인지, 아이를 낳고 키워 대학까지 보내자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있

다. 일자리없는 고통, 생활살이의 설움이라는 자체를 모르고있었다.

북의 주민들은 그런 제도에서 태어났고 그 제도속에서 자랐으며 그 제도를 노래하며 살아가고있다.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나는 조선식민권에 대해 차츰 눈을 뜨게 되었다.

통라도인민유원지에 번듯하게 일떠선 통라곰둥어관에서 치너조교사와 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였다. 아래에 그와 나눈 문답을 소개한다.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인권이요? 그야 인간이 누릴수 있는 권리지요.》

《구체적으로는요?》

《글쎄, 만일 저 물속에 있는 곰둥어에게 물이 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것 같습니까? 물은 떠

나면 곰둥어는 죽게 되지요. 물은 곰둥어의 생명이고 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권은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물과 곰둥어》, 참 신통한 비유였다.

인권에 대한 북주민들의 인식, 그들이 누리는 권리가 어떤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장되는가에 대한 집약적표현이였다.

인류는 수천년동안 자기 권리를 찾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으나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를 리상향으로만

그려왔다. 그 과정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에서 지상의 천국을 그려보기도 하였고 하디의 《레스》나 스토우의 《툼아저씨의 집》, 안데르센의 《성냥파는 아

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북의 현실이 다른 나라들에도 그대로 펼쳐진다면 세계인권선언이 무엇때문에 필요하겠는가.

미국과 서방세계가 북의 현실을 외면하고 《북인권》문제를 그토록 목이 쉬게 불러대는것은 참다운 인권요람, 인권왕국인 북의 실상이 서방세계에 전파되는것이 두려워서일것이다.

글을 맺으며 나는 북의 인권실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싶다.

귀로 듣는것은 상상적 감각이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감각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듣느니 한번 보아야 한다.

바보라고 의식한 바보는 바보가 아니라라는 말이 있듯이 나처럼 눈뜬 소경, 《현실적바보》가 되지 않겠거든 조선에 꼭 가보아야 한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육류아동병원에서

